

생으로도 먹는 초당 옥수수 진도군에서 본격 수확 돌입

크기 크고 당도 높아 인기...9개 농가 10만평서 약 150만개 출하 10억 소득



진도군에서 일반 옥수수 품종에 비해 당도가 높아 '초당'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초당 옥수수가 본

격적인 수확에 들어갔다. 초당 옥수수는 기호에 따라 물에 씻어 생으로 먹기, 전자레인지에 돌려먹기, 찜기에 찌서 먹기 등 조리법 또한 다양해서 소비자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진도산 초당 옥수수는 15~22cm로 크기가 크고, 당도는 16~22 브릭스(Brix)로 일조량이 많고 해풍을 맞고 지라 타 지역보다 더 알차고 높은 당도를 자랑한다.

진도군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재배를 시작, 현재 9개 농가가 10만평에서 약 150만개 출하해 10억여원의 소득을 올리는 특새 작목이다.

출하된 진도산 초당 옥수수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은

10개들이 한상자에 1만2,000원~1만6,000원이다.

초당 옥수수는 일반 옥수수 품종에 비해 당도가 2~3배 높고 카로티노이드, 식이섬유가 풍부해 피부미용과 목속 노폐물 배출 효과가 높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는 물론 아이들 간식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진도 초당옥수수는 따뜻한 해풍 등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생산되어 당도가 높고, 한번 맛을 보면 아삭한 식감 때문에 소비자들이 꼭 다시 찾게 된다"며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려서 진도군 신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한국의 토종 콜라 '맥콜' 원료 '강진산 유기농 겉보리' 수매

㈜일화와 계약재배, 유기농 겉보리 224톤 매입



강진군은 지난 14일 ㈜일화가 신진면 별정리에 위치한 영동농장 광장에서 강진산 유기농 겉보리 224톤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일화의 겉보리 매입은 1차 가공업체인 ㈜피케이푸드를 통해 이뤄졌으며 가공의 과정을 거쳐 한국의 토종 콜라라 불리는

맥콜의 원료로 사용된다. 군은 보리수매제가 폐지된 이후, 동절기 주 소득원 개발의 일환으로 2008년 ㈜일화와 계약재배를 추진해 오고 있다. 관내 총 60ha에 이르는 면적에서 유기농 겉보리를 재배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수확 파종기와 생육기의

일기가 좋아 전년 대비 24톤 이상 수확량이 증가했으나 전량 매입 완료됐다.

유기농 겉보리는 1kg당 1천425원(40kg/57,000원, 1등급 기준)에 이른다. 현재 도암면, 신진면 등에서 10여 농가가 재배 중이며 수확 이후 영동농장 저온창고에 보관한 뒤 ㈜피케이푸드에서 선별해 매입한다. 이후 볶음 과정을 거쳐 ㈜일화에 맥콜 원료로 공급하게 된다.

신진면 수양마을 김순옥(68세)씨는 "친환경 농업인들의 동절기 주 소득 작목인 유기농 겉보리가 올해는 과일 생산됐음에도 전량 매입해줘 고맙다. 우리 농업인들도 보다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맥콜(McCOL)은 ㈜일화에서 1982년부터 생산·판매하고 있는 보리를 이용한 탄산음료이다. 한국의 콜라라 불리기도 하며 달고 맥주처럼 약간의 짭짤한 맛이 난다. 특유의 보리맛과 레몬향으로 인기가 높으며 일본에도 수출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맷코오루'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군, 민선 7기 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 '순항'

51개 사업 중 13개 완료...37개 사업 정상 추진



완도군은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출범 이후 2년 동안 군민들과 약속한 군수 공약 사항과 지시사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한 전 부서가 참석 한 가운데 부서별 추진 상황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완도군의 민선7기 군수 공약은 미래완도, 성장완도, 복지완도, 감동완도, 청정완도 총 5개 전략의 51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모든 공약은 군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사업으로 완도군의 지

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까지 1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7개 사업들도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1개 사업은 추진 불가로 분류되었다.

완료된 사업을 보면 완도 드론 교육훈련원 유지, 지역발전 상생협의회 구성·운영, 도서지역 어린이집 지원 사업 확대, 군민안전보험 확대, 신지명사십리 블루플래그 국제 인증, 해양환경 관리팀 운영, 공공보건기관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비 경감 등 13개 사업이다.

해양자유단지 조성 및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정착, 도시재생 뉴딜,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건립, 전북산업 활성화 장·단기 대책 마련(유통·가공·생산·소비 분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및 세계유산 등재 등 37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완도의 100년 대계를 위한 해양자유산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고, 3회 연속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군은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배심위원회를 운영하여 조정이 필요한 공약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 공약 이행 평가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신우철 군수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공약사업과 지시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이므로 추진 상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해남군, 둘째아 이상 가정 기저귀 받으세요

지원 확대...소득수준 상관없이 둘째아부터 지원

해남군이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군은 올해 7월부터 둘째아 이상 가정이라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기저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셋째아 이상 가정에만 조건없이 기저귀를 지원하고 둘째아 가정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해 왔다.

신청월 기준으로 월 6만 4,000원씩 출생 후 24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관내 업체에서 기저귀 구입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 및 등록은 출생신고 후 해남군청 민원실 1번 모자보건창구



에서 가능하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수급자는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첫째아부터 기저귀 지원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출산가정 기저귀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해남군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통합의료병원 재활 의학과, 야간 연장진료

장흥통합의료병원(병원장 노세웅)은 이달부터 평일에 병원 진료를 받기 힘든 직장인들과 환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야간 연장진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야간 연장진료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17~19시에 운영된다. 연장진료 시간에는 재활의학과 외래 진료 및 방사선 검사, 진단 검사, 통증 주사 치료, 영양 수액 주사, 통증 물리치료, 도수치료, 전문 재활치료(작업, 운동, 연하, 인지)를 받을 수 있다.

노세웅 병원장은 "주 2회 야간 연장진료 운영에 따라 의료진들의 수고가 있겠지만,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통합의료병원 운영을 위해 야간진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함평천지농특산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